

제주사회복지신문

원희룡 '협치' 사회복지계 표심 잡기 '후끈' 신구범 '현장중심'



▲ 사회복지 아젠다를 전달받은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 사회복지 아젠다를 전달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제주도지사 후보.

2014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전달식 및 간담회

6·4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도지사 후보의 날선 복지정책 공방이 펼쳐졌다.

'2014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 (이하 '아젠다포럼')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사회복지 아젠다 전달식 및 간담회'가 지난달 23일 제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회복지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를 초청해 '아젠다포럼'이 제시한 요구안 및 공통질의에 대

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아젠다포럼'은 이날 두 후보에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 △도민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확

보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회복지사 전문연수 및 자격수당 지급 등 5대 아젠다와 14개 세부 아젠다를 전달했고, 두 후보 모두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해법은 달랐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가 나오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몸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를 보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원 후보 "도지사 중심 아닌 협치 도정"

신 후보 "사회복지 우선순위로 도정 재편"

말했다. 이어 "원희룡의 도정은 도지사 중심이 아니라 협치를 통해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예산의 총액 등을 복지 현장 종사자들과 단체 대표들이 '복지협치위원회'를 통해 의논해 결정하면 이

를 그대로 집행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며 "도정의 핵심은 바닥 현장이 중심 권한을 갖고, 민간이 관료를 모든 과정서 주도하는 민·관 협치를 제주도에서 실험하고 성공하고 싶다. 그 중요 분야가 복지이며, 여러 분들도 도지사 권한을 나눠가졌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는 "그동안 제주 도정은 개발 중심으로 집행돼 왔으나 이제는 복지,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중심에 복지가 있다"며 "복지는 시혜를 베푸

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약자들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다. 대상자들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대상자를 모욕하는 행위이며 이런 의식부터 바뀌나갈 것이다. 사회복지를 우선순위로 도정을 재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회복지현장은 현장에서 정책이 이뤄지고, 예산을 다루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도가 직접 '감나라 배나라' 할 이유가 없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정책 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7면에서 계속>

6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7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연강병원	도민강좌	(소아)우울증 / 정신과전문의 김선영 과장	27일(금) 17시~18시 / 연강정신과의원 회의실(터미널 맞은편)	726-7900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국민강좌	'스마트폰 뺏어?말아?' /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11일(수) 10시~12시 / 제주대학교병원 2층 대강당 / 무료	728-4074	
	2014년 조울병의 날 행사	조울증에 대한 강의(정영은 교수) / 선별검사 및 전문의 상담 등	17일(화) 14시~16시 / 제주대학교병원 2층 1세미나실 / 무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프로젝트 매니저 아카데미	3차 사회복지조직의 운영 전략세우기 / 표경흠 대표(웹캠)	11일(수) 10시~18시	협의회 삼다수홀(2층)	702-3784
		4차 중장기 운영계획세우기 / 표경흠 대표(웹캠)	25일(수) 10시~18시		
		보도자료 작성 실무 및 보도사진 실제 / 김호천기자(연합뉴스)	16일(월) 10시~13시		
		사회복지 영상기록과 활용 / 이성중 감동(복지영상)	16일(월) 14시~18시		
		비디오워크숍 I, II / 이성중 감동(복지영상)	17일(화), 24일(화) 10시~18시		
	인증관리요원 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요원 양성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인증관리 DB시스템 활용 등	18일(수)~19일(목) 14시~18시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제주 박제연 학생 당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에 제주지역회의 청소년대표 5명이 참가해 박제연(세

에서 열린 이번 출범식은 전국 청소년대표,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등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선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주지역도 올해 정책의제로 선정된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주제와 관련한 정책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한 정책과제는 오는 11월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화고 3)학생이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

제주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장애학생 주말학교’를 운영한다.

장애학생의 다양한 문화 체험학습의 기회 제공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도예반, 원예활동반, 볼링반, 풋살반, 풍물반, 동화구연반, 난타반 등 7개 반을 개설했다.

주말학교는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

제주시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48억을 투입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8억(20%증가)이 증가되었으며, 기존 13개 사업에서 신규 사업을 공모해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장애아동음악 재활지원서비스, 임산부 토달케어 서비스를 추가, 1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공기관도 지난해 94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난 115 곳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향상되고, 일자리도 창출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

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국비 70%, 지방비 30%)을 받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일명 바우처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제주복지관,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선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에서 진행하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이성주(가명)아동에게 축구용품세트를, 조류학자로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김주이(가명)아동을 위한 조류관찰용 망원경을, 김민준(가명)아동에게는 레고세트를, 이주미(가명)아동을 위한 책상을 다음커뮤니케이션 후원으로 지원하게 됐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도움이 필요한 제주 이웃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면 소원을 들어주는 다음의 지역공헌 사업이다.

복지부정 신고는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고



우편·방문 신고



전화·팩스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427-70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 과천청사) 2동 6층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TEL 국번없이 110 FAX 02-2110-0678

복지부정 신고 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복지부정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분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 신고보상 및 포상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 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절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여부 및 금액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 신청 기한 :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TEL. 064)710-2811



성지요양원, 고사리 손과 카네이션의 만남

성지요양원(원장 송창권)은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세대통합 결연시설 성지어린이집(원장 문영신)과 ‘고사리 손과 카네이션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인 성지어린이집 원아들은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며 큰 절을 올렸다.

두 시설은 생신잔치 프로그램을 매달 마련하는 등 효(孝)사랑을 실천하고,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소통할 수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가족이 주는 선물’ 건강한 가족 만들기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상구)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위기예방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 ‘결혼초기 배우자 이해교육’, 2단계 ‘다문화가정 위기예방 지지체계 구축’, 3단계 ‘힐링프로그램을 통한 자립성 증진’ 순으로 진행된다.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단계 사업으로 지

난 4월부터 5월까지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배우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지난달 7일에는 다문화지킴이 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총 38명의 다문화지킴이를 위촉했다.

서귀포시는 “가족해체를 방지하고자 실시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족구성원 간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제3기 복지계획 수립에 박차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양병식, 이상구 공동대표)는 오는 2015년부터 시작하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 4년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역전문가와 지역대표, 복지위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복지계획수립 TF팀을 구성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서귀포 지역주민 400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육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407개소에 대한 자원조사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제3기 계

획수립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민과 함께 열린 토의를 거쳐 3기 계획에 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은 복지수요의 측정과 전망,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사회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대책,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등이다.

앞으로 시와 협의회에서는 6월말까지 지역여건을 반영한 제3기 복지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9월중에 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 친구 자미성 약천사 방문



사회복지법인 구도원 내 친구가 사는 자미성(원장 현갑열)은 지난달 6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귀포시에 위치한 약천사(주지성원스님)를 찾았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약천사에서 약 100만 원 상당의 쌀을 후원했다.

의료급여제도, 사회복지시설 순회교육

제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1일부터 제주요양원, 제주도립요양원, 제주양로원을 시작으로 수급자가 많은 읍·면·동과 병원, 시설을 중심으로 76개 시설을 연중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질병에 비해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시설수급

자들에게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선택병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등의 상담을 병행해 병의원 의존도를 낮춰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의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올바르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재정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랑과 열정의 꽃이 피다’



행복한쉼터(원장 정석 왕)는 지난달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제주대학교 봉사동아리 ‘해피바이러스’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성년이 되는 3명의 이용자와 봉사동아리 회원 중 성년이 되는 회원 6명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행사는 ‘성년의 날’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 축하편지 낭독, 가족들의 영상편지를 보며 성년의 날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부복지관, ‘감나무멘토링’ 실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 장 안원식)은 보건복지부

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IBK기업은행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 3년째 제주시 서부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다.

지난 4월 26일 매칭·발대식을 시작으로 멘토와 멘티 개별 1:1 학습·정서지원 활동 외 멘토교육, 관계증진프로그램, 양육자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주시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국고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소득에 관계없이 신생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의 자녀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경우면 누구나 신

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4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1,02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1,360,000	1,360,000
복지사업후원	4,110,000	0
푸드마켓후원	4,450,000	27,450,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5월 식품기탁자



▲안신희씨=채소류 10kg ▲금강수산유통=고등어살 80kg ▲금강축산유통=육류 400kg ▲김치원=김치 41kg ▲동원F&B제주=식재료 2673개 ▲빵피아모=빵 19봉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336모, 콩물 18개 ▲신화유통=참기름 등 114개 ▲영화식품=고추장 등 6개 ▲이든이네=멸치 9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잎채소 15.5kg ▲자연드림이도점=빵 266봉 ▲제성상회=옛날김말이 30개 ▲제주보리촌=보리빵 127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100팩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199봉

'섬, 제주 수화에 물들다'

제3회 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 '울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 협회(회장 박춘근)는 오는 20~21일 양일간 제3회 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 '울림' - '섬, 제주 수화에 물들다'의 막을 올린다.

행사 첫날인 20일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농문화 체험 울림한마당이 제주 벤처마루 앞마당에서 열리고, 수화교육, 수화이름 짓

기 등 다양한 농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든지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다.

행사 둘째 날인 21일 오전에는 '6·3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도내 청각·언어 장애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진행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등 제주농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진이엔씨, 후원금 전달



해진이엔씨는 지난 달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을 방문해 참고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 및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아가의 집, 콩쿠르 참가 성악부분 우수상 수상



해정원 아가의 집(원장 박두현)은 지난달 10일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23회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쿠르' 성악부분에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강정우(17세)학생이 이탈리아 가곡 'Sebben, Crudel'을 불러 성악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은성복지관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달 4월 9일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기념식은 제주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악대 공연과 민요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봉한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마/당

제일지역아동센터, 요양원 양말 증정



아동복지시설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영식)는 지난달 8일 원광요양원을 방문하여 과학고 자바 봉사단에서 후원받은 양말과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또 이날 CJ도너스캠프 지원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제주도 풍경 소재를 아트 클레이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자립여행 '우리들의 여행스케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업무대행 양창근)는 지난달 17일 중·고등 위탁아동 20명을 대상으로한 '2014선진지 자립여행'을 떠났다.

이번 체험활동은 지난 2월 자립여행을 다녀 온 아동들의 후속모임으로 환상 숲을 찾아 나만의 석부작을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미션을 체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선도원, 부설기관 사회문화체험 떠나



사회복지법인 선도원(부설) 뽀얌(원장 임주리), 마리아의 집(원장 허정자)은 오는 10~12일 2박 3일간 사회문화체험을 실시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청남대 탐방을 비롯해 백제 낙화암, 중증장애인 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인 행복나눔 견학 등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장애전담 특수학교와 MOU체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지난 4월 제주 영지학교(교장 이행운), 서귀포오성학교(교장 공태수)와 상호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 통해 향후 장애인 보조기구 외부지원사업 안내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선정해 장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등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찬찬찬' 반찬가게의 아름다운 동행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에서 운영하는 '찬찬찬'은 지난 4월 24일 서귀포 대륜동복지위원회의체(위원장 윤세찬)와 사회복지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대륜동 관내 조손 및 부자가정 10가구에 밑반찬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찬찬찬'은 지난해에 이어 미리내 가게를 도입하여 고객들의 포인트 기부와 자체 매칭을 통해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삼화요양원, 1·3세대 통합프로그램



삼화요양원(원장 정학주)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어린이집과 연계한 1·3세대 통합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카네이션 달아주기 시작으로 삼화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롱잔치, 직원들이 준비한 꽃봉오리 중창단 공연, 제주해양경비단의 찬조 출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마련했다.

“기운이에게 희망의 손길을 전해주세요”



기운이(16, 가명)가 쓰러진 것은 올해 2월. 축구를 유독 좋아하는 건강한 아이였다. 그런 기운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시작하지 불과 5분여 만에 힘없이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다.

‘브로가다 증후군’에 따른 ‘심실세동’으로 인해 급성 심정지로 추정되는 증상에 의해 쓰러진 것이다. 기운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린 두 동생과 함께 제주보육원에 살고 있다. 어려운 형편으로 중학교 조

차 다닐 수 없어 검정고시로 졸업을 해야만 했다. 입원 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병원비 상당부분을 지원받았으나 일반병실로 이동 후 발생하는 간병비는 고스란히 자부담으로 남아있다. 지자체 및 후원자들의 정성에도 간병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 어린 나이에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학교 입학 불과 보름 앞두고 생명의 갈림길에 들어선 기운이에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제주보육원은 기운이를 돕기 위한 전용 후원 계좌를 개설하여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743-5020)

제10회 가족제자사랑한마음 오름트레킹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허철수)는 지난달 17일,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제10회 가족제자사랑한마음 오름트레킹’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가족, 스승과 제자,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 및 스승과 제자의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마련했다. 이 행사는 제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 사라봉 그리고

별도봉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간별 코스이벤트를 비롯하여 행복문패 만들기, 즉석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폭력·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함께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적십자 재난대응봉사회, 제주 YMCA가 협력기관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성자현, 아쿠아플라넷 현장체험

지적·자폐성 장애인거주시설 성자현(원장 진유신)은 지난달 12일 한화 아쿠아플라넷에서 현장체험을 진행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체험은 거주인들이 자존감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가 됐다.

가톨릭주간보호, 제주우편집중국 견학



집중국을 방문했다. 장애인들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활동은 센터 내에서 편지보내는 방법, 공공장소 이용예절 등 교육을 받았다. 현성훈 원장은 “앞으로도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 시설 이용, 생태 체험을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망요양원, 최우수 기관 선정



노인요양시설 소망요양원(원장 고경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소망요양원은 2004년에 개원한 후 어르신들의 일상 케어 서비스의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발

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고경애 원장은 “2011년에 이어 최우수기관이 선정된 만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와 지역주민들의 쉽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라복지관, 아라소식 창간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23일 ‘아라소식’을 창간했다. ‘아라소식’ 마을신문은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인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연 4회 발간할 예정이다. 발간한 신문은 아라동 지역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제주대학병원 등 아라동 중심으로 2000부가 배부된다. ‘아라소식’ 마을신문은 아라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는 지난달 14일 체험활동으로 제주우편

순복음복지관, 어르신과 야외 나들이 떠나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9일 등급 외 치매주간보호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나들이는 도내 대학생 자원봉사단 씨니와 함께

경마공원에서 율동과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금문도 중화요리에서 후원 받아 식사를 했다. 이 사업은 생명보험 공헌재단(이사장 이시행)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칼럼

도지사 후보 사회복지 공약 반드시 이행해야



한 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관 및 단체별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하는 정책현안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다. 공약제안에 있어서도 과거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정책제안, 능동적으로 변화

이에 제주경실련(중앙 경실련 공동)은 이번 제주도지사 출마하는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와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진해야 할 사회복지분야 정책을 공개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확충 계획 및 방법,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방안 등이다.

이에 대한 후보별 주요 답변 내용을 보면 첫째, 예산확충 계획 및 방법에 있어 원 후보는 선심성 등 방만한 사업정리를 통한 복지예산 확충과 함께 민간복지 활성화와 사회복지 전문 인력 역량강화에 도비 150억 원, 대상별 맞춤형 복지 시행에 도비 107억 원을 연차별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신 후보는 사회복지에 매년 일반회계의 30%를 목표로 설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재정지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이후에는 복지협의체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 후보는 '비추미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주체 확대, 사전 모니터링 및 최소급여 지원, 긴급복지지원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신 후보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실태를 조사하고 제주

형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며 보편적 복지 제주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공약, 반드시 지켜져야

셋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원 후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걸 맞는 전달주체 개편, 종사자 전문성 향상, 민·관파트너십 정착 및 모럴헤저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신 후보는 통합보조금 시스템 공개 내역 확대, 읍·면·동 복지협의체 활성화, 전담 공무원 확충 및 특별 보좌관 도입, 복지급여 민간 평가단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 공약만 하더라도 후보마다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며 시의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회복지계의 몫이다. 그리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제시된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사랑의 가정



한복섭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제주시지회 부회장

1852년 4. 2일, 알제리에서 죽은 한 시인이 국민들에게 돌아왔다. 사람들이 그 유골이 도착하자 엄숙함으로 대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작사한 노랫말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하여도 내 실 곳은 오직 내 작은집뿐이

리~" 흙, 스위트 흙, '존 하워드 패인' 이 작사한 노래가 전미국민들에게 애창되었다.

안식함과 쉼터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다. 이 세상에서 가치는 또 평화이다. 진정한 평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눈빛에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참된 안식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평화가 하나로 뭉쳐지는 가정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매우 어렵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산다는 것은 항상 고난이 있고 상실이 있다지만 그렇지만 상실위엔 버섯처럼 솟아오르는 얻는 것이 또한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강박한 삶을 한답시고 양심을 잃고 막무가내 격으로 사

회생활에 적응 한다는 것, 그건 인격적 상실과 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다.

복지로 가는 사회, 가정과 모든 기관이 사랑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삶이자 참되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밥상머리 앞에서 식구들과 정을 나누어야 한다.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마음속의 소요는 한결 다스리기가 어렵고 어느 때는 평생 다 살아버린 듯한 피곤에 휘말려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도 백번 일어나는 오독이의 위력을 마음속에 염두 하면서 한나라 한 지붕 아래서 알뜰한 사랑의 정을 나누자.

시론

도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



강승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회복지 정책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 19조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1997년 IMF 경제위기 때까지 이어져 빈

곤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고 사회복지 역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를 향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의 패러다임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복지 패러다임, 보편적 복지로 전환

도의 올 해 복지정책 비전은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이다. 이는 곧 저소득·취약계층만이 아닌 온 도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구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도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 금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사상 최대인 23.9%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 현실화, 차질 없는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출산·보육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온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자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등 도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확대,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등 복지욕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도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이고 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복지수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복지 예산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행정 시스템 개선 △행정, 기업체, 민간단체 간 연계와 협력에 기반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복지 제주'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희룡 후보

6·4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초청
2014사회복지아젠다전달식 및 간담회

신구범 후보



제주사회복지 5대 아젠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 공공복지 전문성 강화
- 도민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확보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사회복지사 전문연수 및 자격수당 지급



원 후보 “민·관 협치로 도지사 권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나누겠다”
신 후보 “도지사 리더십 통해 현장중심 사회복지 체계 만들겠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아젠다포럼’이 제시한 5대 아젠다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복지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두고 실행에 옮길 것임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이미 복지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약속했듯이 전폭적인 반영을 검토할 것이며, 사회복지 특보는 이미 물밑 인선작업에 들

차별시정 보조금 만들어 단계별 집행

어갔다”며 “공무원 중 마땅한 이가 없다면 개방형 직위를 신설해서라도 책임자를 앉힐 것이며, 하부 직원 역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열정이 있는 이들로 세우되 복지단체 등의 인사평가와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민·관의 수평적 협치와 권한배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 후보는 “내 주요공약이 협치”라고 강조한 뒤 “20여 명으로 구성된 협치위원회에 예산배정은 물론 인사에 대한 건의, 감독, 시정권고, 징계권한까지 나누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원 후보는 “명

예와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이들이 처우 때문에 투쟁해야 하는 것은 후진국형 시스템”이라며 “예산 문제인지라 쉽지 않지만 ‘차별시정 보조금’ 등을 만들어 노동의 대가, 봉사, 열정을 바친 것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것들을 최소한이나마 해소하겠다. 이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4년 도정의 목표치를 단계별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옴부즈맨 제도’, ‘과제 담당관’ 등을 신설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 전달체계를 꾸려가겠다고 약속했으며, 사회복지 신규 일자리 창출 방

옴부즈맨 제도, 과제 담당관 등 신설

안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베리어프리 아일랜드’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공공 일자리를 ‘복지 피로 계층’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대학과 연구기관, 공기업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는 ‘아젠다포럼’이 제시한 5대 아젠다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과거 도지사 경험과 리더십을 통해 아젠다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5개의 아젠다는 모두 실현가능한 일인데 아직 안된 이유는 사회복지 행정이 공급중심이었던 때문이다. 이제 수요중심으로 전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향상

환해야 한다”며 “사회복지 예산수준을 먼저 결정하고 사회복지 단계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되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의 국장은 반드시 전공자나 사회복지사가 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낭비를 막고 책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관의 수평적 협치와 권한배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 후보는 “도위원회가 170개, 시민사회단체로 등록된 곳만 460개가 넘는 등 지금

도 협치를 안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지려면 도지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실천해나가느냐가 관건”이라며 변별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신 후보는 “사회복지를 봉사와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한 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은 당연하며, 제주에서만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테스크포스를 꾸려 특례규정이나

테스크포스 꾸려 공급 시스템 구축

조례 등을 만들어 제주의 공급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복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는 기업에게 사회복지 부담금이나 고용창출 의무화 등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간의 교차근무, 연수 등을 내놓았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4) - '떡동아리를 찾아서'

사랑을 전하는 떡동아리 '우리 떡 Up Go 놀자'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이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던 5월의 어느 날, 몽생이 기자단 2기는 2곳의 학교가 모여 퓨전 떡을 만든다는 떡동아리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이름하여 '우리 떡 Up Go 놀자!' (이하 '떡 동아리').. 이름도 특이하여 어떤 동아리인지 궁금하여 취재를 가는 아침부터 설레었습니다.

떡 동아리는 제주시청소년수련관과 제주중학교, 제주서중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동아리로서 전국적으로 '떡'을 주제로 하는 동아리는 떡 동아리 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통 음식보다 서양음식이나 인스턴트에 더 익숙해져 있어 떡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나 영양 면에서 뒤지지 않는 우리만의 전통 음식을 청소년들이 더 관심을 가져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글로벌 음식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떡 동아리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떡은 옛것이라는 인식과 명절이나 제사 때만 먹는다는 인식을 바꾸고, 떡을 퓨전화 시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볼 수 있도록 체험을 하는 것으로 우리 고유의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이 날,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얀떡, 팔고물 떡이 아니라 초코, 레몬, 딸기, 김치, 떡갈비 등을 이용하여 완성된 퓨전떡을 보며 '와~진짜 예쁘다.' 라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 중 눈에 띄던 것은 하얀 시루떡 위에 김치와 찹쌀을 버무려 만든 고물과 떡갈비로 데코레이션을 하니 김치떡갈비 떡이었는데 김치전 맛도 나면서 떡과 함께 오묘한 조합을 이루는 것이 생각보다 맛있

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우리 떡 동아리는 떡을 퓨전화 시켜 개발하여 요리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에게 파티쉐나 고급호텔주방장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것을 먼저 개척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것을 글로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나 전통음식을 잘 지키고 등한시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 떡 Up Go 놀자' 동아리 화이팅!!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람'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⑩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그 대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신청을 도와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



양영화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임차인으로서 기초수급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뜻밖에도 집주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B씨가 힘든 사정을 설명하며 애원했지만 집주인은 그건 B

씨 사정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대출을 받아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을 납부한 B씨는 걱정만 하였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구청 사례관리 담당자는 법률홍닥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구청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B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법률홍닥터는 B씨와의 상담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황이 열악해서 하루라도 빨리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B씨에게,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는 이사를 가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됨을 알려주었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민사소송보다 간

편하게 바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B씨는 법률홍닥터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을 방문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결국 며칠 후 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B씨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자유롭게 주거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된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INFO

법률홍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홍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